

EV3 유럽 안전평가 ‘별 5개’…충돌시 승객 안전 유지

소형차 불리함 딛고 최고등급 획득
성인·어린이 탑승자 보호 등 고득점

전세계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가는 기아의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EV3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여줬다.

기아는 EV3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EV3는 충돌 상황에서 승객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되며 탑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이 탑재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같은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EV3가 충돌 안전 성능이 불리한 소형 차급임에도 견고한 차체와 다양한 안전 사양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로써 기아는 2022년 EV6, 2023년 EV9에 이어 이번 EV3까지 유로 NCAP 평가를 받은 모든 전용 전기차 모델이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

리게 됐다.

유로 NCAP 테스트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이다.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실시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유로 NCAP 측은 “EV3가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모든 탑승자의 주요 신체를 잘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인 탑승자 보호 평가 중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어린이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도 뛰어난 모든 주요 신체 부위 보호 능력을 보였다.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 긴급 구난 센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탑재된 점, 충돌 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적용된 점도 호평을 얻었다.



기아 EV3가 최근 ‘유로 NCAP’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

기아 제공

기아 유럽법인 상품 및 마케팅 담당 파블로 마르티네즈 상무는 “EV3는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놀랍도록 다재다능한 차량”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EV3가 운전자와 동

승자,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차량임을 보여준 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현대차그룹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에 참가한 고령운전자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실습 교육인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를 운영한다.

2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는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 참여중인 복지관에서 선정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대상자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전문 교수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운전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물 회피와 빗길 제동 등 체험을 통한 고령 운전자의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으며, 안전운전 교육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기대중이다.

이와 함께 차량 점검 방법과 개정된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론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 20일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으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등에서 고령 운전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승현 기자

현대차 ‘2026 그랜저’ 출시…디자인·상품성 업그레이드

스페셜 트림 ‘아너스’ 첫선

현대자동차가 국내 대표 고급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그랜저’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6 그랜저는 기존 모델의 주요 선호사항을 대폭 적용한 스페셜 트림 ‘아너스(Honors)’를 새롭게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아너스 트림에는 다수 고객이 선택품목으로 장착한 △현대 스마트센스 II △BOSE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존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 블랙 잉크 전용 외관 디자인·19인치 알로이 휠·타이어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

또한 현대차는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캘리그래피 트림에 기본화하고 △10.25인치 풀 터치 공조 컨트롤 △인터랙티브 엠비언트 무드 램프(순차 점등·주행상황 연동 기능 등) 등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기본화했다. △천연 가죽 시트 △1열 통풍시트 △스마트 파워 윈도우 등은 프리미엄 트림의 기본사양으



현대자동차가 ‘2026 그랜저’를 출시한다. 2026 그랜저 외장.

현대자동차 제공

로 구성하는 등 주요 선호사항을 각 트림별로 기본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2026 그랜저 출시를 기념해 현대차 첫 구매로 그랜저를 선택한 고객에게 1년 또는 2만km 이내 발생한 외장 손상에 대해 부위 별 보장한도 금액 안에서 수리 및 교체를 보장하는 ‘바디케어 무상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그랜저 아너스 트림 계약 고객에게는 스마트카드키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6 그랜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그랜저 아너스’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페셜 트림으로 우수한 상품성과 고급스러운 외관 등 디자인과 상품성 전 측면에서 고객 만족 실현을 목표로 준비했다”며 “내년 출시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세단 그랜저에 오랜 기간 변함없는 고객 성원에 우수한 상품 가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